

은혜와 진리소식

2024년 1월 28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63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남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저에게 첫사랑의 순수한
믿음과 열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박 정 재 -

제가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남편은 의료용 침상에 누워서 저를 반기고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홀썩’ 저의 품에 안깁니다. 우리 집 강아지가 지금 나에게 하는 것 같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부종하는 생활을 했다면 저의 오늘 일상이 사뭇 달라졌을 것입니다. 저는 첫 아이를 낳고 자살충동이 생길 정도로 극심한 산후우울증을 앓을 때에 은혜와진리교회 구역장님의 전도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아들이 군 제대를 앞두고 있으니 제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생활을 한 지 어느덧 22년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저는 전도다운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었고 불교와 유교와 무속신앙이 한데 섞인 우상숭배를 하는 가정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산후우울증을 앓던 당시 교구 전도사님과 구역 성도님들이 한 달 넘게 집에 찾아오셔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작정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말씀에 은혜를 받아 홀로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내 귀에 들려주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1년 동안 치료를 잘 받은 후 약을 완전히 끊고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저의 병을 치료해 주신 주님이 너무 좋아서 ‘복음’을 주제로 한 미술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미술 실기지도도를 하면서 화가로서 창작활동을 꾸준히 하여 그동안 13차례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무뚝뚝하지만 성실한 남편이 헌신적으로 도와주었고 또한 교우들의 기도와 성원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남편은 반도체 장비와 관련된 일을 하며 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몇 번의 이직 후 이제 마지막 직장으로 알고 들어간 회사에서 호기롭게 중국시장을 개척하였고, 남편이 그 중요한 임무를 맡아 글로벌 반도체 연구소와 생산공장이 많이 있는 우한에서 반도체 장비를 판매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한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이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중국을 왕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회사가 파산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급하게 새로 시작한 일이 태양광 관련 사업이었습니다. 남편은 바깥일을 자세하게 말해주는 성격이 아니어서 저는 남편이 월급을 갖다 주면 그저 회사 일이 순조롭게 잘 되는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개업하고 일 년쯤 지나자 남편이 무언가에 쫓기는 듯 자주 불안해하고 술, 담배가 늘더니 겨우 드리던 주일예배마저 등한시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의 형님 두 분이 한 해에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큰 결심을 하고 술, 담배를 끊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 시간씩 집 근처 공원에서 운동을 하는 등 절제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활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회사의 주거래치가 부도를 내면서 그로 인한 자금 압박이 고스란히 남편 회사에 떠넘겨지고 저희 집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저는 법원에

서 온 우편물을 보고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여러 가지 신호가 있었지만 저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경매에 관한 서류를 받은 그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피가 섞인 구토를 하고 119구급차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저는 남편이 응급처치에 이은 치료를 마치는 대로 곧 집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오랫동안 잠을 잘 못 자고 음주와 흡연 등으로 인해 그동안 남편의 몸이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남편이 말기 간경화이고 지금 상태로는 일주일일이 고비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이 쓰러졌던 안방에서 가슴을 치고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위한 기도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이 너무 불쌍해서 이대로 못 보냅니다. 남편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를 용서해주세요.” 하늘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교구 전도사님과 봉사하는 교회학교 중고등부 선생님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면서 남편의 간 수치가 많이 내려 간 이식을 받으면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하겠다고 해서 삼성의료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남편의 몸 상태가 생체간이식은 받기 힘들다면서 뇌사자의 간이식을 권하였습니다. 병원상당을 마치고 부모님 댁에서 드리는 구역 예배에 참석한 후 돌아가려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간 이식을 받을 수 있는 뇌사자가 있으며 보호자 동의 후에 곧바로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신속하게 이식수술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남편은 10시간 넘게 걸리는 수술을 6시간 만에 무사히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어 일반병실로 옮긴 후 남편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들과 저는 시편 말씀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긍휼과 치료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남편이 입원해 있는 동안 저는 남편 회사의 뒷수습을 하면서 악한 사람들과 터무니없는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남편이 조금은 이해가 되고 측은하였습니다. 저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오래 범무 일을 해 온 고향 친구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얹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듯이 차근차근 회사를 정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남편은 3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기 전에 기도에 삽입한 튜브를 제거하기 위해 삼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날 오후에 몇 번의 구토를 하더니 꼬리뼈에 통증이 심해 진통제 주사를 맞고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지를 않았습니다. CT촬영 결과 뇌출혈 진단을 받고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신경외과 의사선생님이 출혈 부위가 초기에 발견했어도 수술이 힘든 부위여서 남편이 뇌사 상태나 식물인간 상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아이처럼 곤히 자고 있는 남편의 손을 잡고 기도한 후 남편이 있던 일반병실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고 다른 환자의 보호자와 함께 새벽예배를 드리고는 집으로 왔습니다. 힘을 다 소진해서 침대에 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는데 중고등부 총무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남편의 상태를 말해주니 “아니, 사람이 못하는 일이니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절망하지 말고 우리 함께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셨습니다. ‘맞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마음을 진정시키고 교구장님께 남편의 상태를 말씀드리며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교구장님이 교회에서 당회장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교역자님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신다며 힘내라고 용기를 북돋워 주셨습니다. 대교구장 목사님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의식이 없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지 한 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지만 저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러니 남편이 깨어난다는 어떤 표적을 저에게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병원으로 남편 면회를 갔습니다. 마침 병원에서 뇌파검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검사를 담당하신 의사선생님이 “보호자님, 너무 걱정 마세요. 이 뇌파는 잠자는 뇌파예요. 손상되어서 나타나는 뇌파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남편이 하품을 길게 하더니 깨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중환자실에서 생긴 욕창의 치료를 위해 2시간마다 남편의 자세를 바꿔주는 일이 여간 중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하루가 다르게 의식을 찾아가고 눈에 충기가 생기는 것을 보면 그런 남편에게 고맙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였습니다. 꼬리뼈 욕창이 4기였던 남편인데 수술을 받지 않고 새살이 돌아나도록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신경외과 교수님이 말씀하기를, 뇌간 부위의 손상은 의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데 남편이 이만큼 회복된 것은 기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운동신경이 회복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재활치료를 위해 남편을 침상채로 요양병원으로 옮겼다가 집이 더 나올 것 같아 집에서 돌볼 결심을 했는데 남편이 폐렴에 걸려 다시 삼성의료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완쾌되자마자 가정간호 신청을 하고 새로 이사 온 집으로 남편을 데려왔습니다. 10개월 만에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온 날이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운동신경이 돌아오지 않아 침상에 누워서 지내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 평온한 모습입니다.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 있어요?” 하고 물으면 눈을 깜박입니다. “여보, 예수님이 당신 대신 고난 받으시고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믿어져요?” 그러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됐어요. 당신과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예요!”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남편을 돌보는 것이 여간 힘에 부칠 때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이 더 저를 괴롭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미움과 원망이 제 마음속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침상에 누운 채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노라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였던 나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남편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드리는 찬송을 합니다.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저는 오늘 하루를 또 힘차게,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교회학교와 수요예배와 금요예배 성가대에서 봉사하면서 저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듯 신령한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다 고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간증은 남편이 침상을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때에 함께 간증하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처음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한 날 저에게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의 씨를 뿌려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로운 말씀으로 저의 믿음이 자라가며 영혼이 살찌게 해주시는 당회장 목사님, 남편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확신하도록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님들의 사랑과 기도 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 교구의 장로님과 권사님을 비롯하여 구역의 성도님들, 성가대 대장님과 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부모님과 가족들 특히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주는 친정언니와 형부에게 고맙고, 전방 GOP 부대에서 추위를 무릅쓰고 나라를 지키면서 아빠와 엄마를 위해 기도하는 아들 또한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첫사랑으로 순전한 믿음의 출발선에 다시금 세워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구역공과

제1권 (제5단원 : 예수님의 가르침)

(제33과)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 본문 : 마태복음 18:21-35
- 요절 :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 6:15)
- 찬송 : 487장(새찬송가 369장), 206장(새찬송가 284장)

예수님은 형제가 자기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는지를 묻는 베드로에게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소중함을 어떤 임금의 이야기를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에게 일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진 자를 불러서 당장 값을 돈이 없으면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즉시 갚도록 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임금에게 엎드려 절하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 일만 달란트의 거액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빚진 자는 임금에게 이토록 큰 은혜를 입게 된 것을 감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던 중 자기에게 겨우 일백 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 목을 잡고 당장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의 소중함을 금세 잊어버리고, 자기가 임금에게 했던 것처럼 그에게 빚진 사람도 자기에게 빌면서 기다려달라고 간청하였지만 듣지도 않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동료들이 그 광경을 보고 탄탄을 하며 임금에게 자기들이 본대로 고하였더니 이 말을 들은 임금은 매우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빚을 탕감 받았던 자를 다시 불러서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하고 노하며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나타내야 하는 용서의 소중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용서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의 결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들은 용서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총리대신이 된 요셉은 자기를 은 20에 팔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하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당했던 고난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 배후에서 그 고난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형들 앞에서, “나를 판 일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큰 구원으로 우리 가족과 후손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 왕을 해할만한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씩이나 용서해 주었습니다(삼상 24:7-10, 26:7-12). 그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조차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마련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결국은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자기를 높여 주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용서는 자신이 받은 억울함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며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에는 용서라고 하는 열매가 가득 차도록 맺히게 됩니다.

2.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막 11:25)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 6:14,15)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이웃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도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는 용서의 소중함을 아는 자에게 더욱 값지게 베풀어집니다.

또 성경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롬 12:19)고 가르치면서 성도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듯이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은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하였으니 성도는 서로 사랑하며 용서해 줌으로 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은 성도 모두에게는 용서의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3. 용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끌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 십자가에 못박은 로마 군병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애매히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성도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성경(벤전 2:21)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옥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셨으며, 많은 원수들로부터 위협을 당할 때에도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결심한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용서를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용서하신 것은 아닙니다. 성전 안에서 재물로 바칠 짐승을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짐승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버린 행위를 보시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며 진리에 대적되는 행위는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진리에 대적되는 일을 참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인간 상호간에 있는 허물과 과실을 참아 주며 용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진리를 거짓으로 꾸며 사람들에게 전파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용서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를 하되,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를 위해 권면하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 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 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병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병화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 (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남로41번길30 T. 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 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롤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